

성별에 따른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장비 및 연도별 성별비 현황조사 연구

권 순 석
(동우대학 치기공과)

Abstract

A Study of the growth rate of licensed dental technicians by sex and the state of sex ratio on the year basis

Soon-Seog Kwon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ong-u Colleg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growth rate on the basis of the sex and the year among the subjects of the licensed dental technicians from the year 1970 to 2003 in Korea. In line with this investig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c material with regard to the state of dental technician workforce by sex and to suggest a need to reassignment of workforce by sex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job descrip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licensed dental technicians from 1970 to 2003, males came to 11,589 and females, 5,976, which shows the number of males are 1.9 time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To put the mean sexual composite from 1970 to 2003, male was 82.9% and female 17.1%, indicating the number of males are 4.8 higher than that of females. Second, Of the mean increasing rate until the year 2003 in contrast to 1970, male was about 351 and female was about 181, which shows the number of males increased 1.94 times higher than the females. Comparing to the mean increasing rate of the last year, female came to 25.56% and male 10.73%, which reveals that the females were about 2.4 times higher than the males. In the case of the growth rate, females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동우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성명 : 권 순 석 ■전화 : 033-639-0663 ■E-mail : kss37@duc.ac.kr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244번지 동우대학 치기공과

increased by 1,196,20 times and the males, 26,41. As a result the growth of females are about 45.3 times higher than the males. Third, in the case of the growth rate from 1980 to 2003, females came to 47.85 times and males 9.16, which shows the growth rate of the females was about 5.2 times higher than the males. In contrast to the year 1987, the growth rate until 2003 shows that the females came to 5.13 times and the males 2.70, which indicates the growth rate of females was about 1.9 times higher than males. Fourth, Compared to the year 1990, the growth rate until 2003 shows that females came to 3.40 times and males 2.03 indicating the growth rate of the females was about 1.7 times higher than males. In contrast to the year 2000, the growth rate till 2003 shows that females was 1.34 times and males 1.15 times increased. Fifth, the ratio of sex by the year among the licensed dental technicians is as follows: ratio of male to female in 1970 was 91.2 to 1. In 2003 the ratio came to 2.0 to 1. The number of growth by sex in 1970 came to 24.0 males to 1 female. But the figure was equalled in 2003.

◎ Key Words: dental technician, increase ratio, sex ratio, males, femal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의 사회구조와 함께 경제발달에 따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의 영향에 따라 보건의료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처해있다.

197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확대와 함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포괄적 의료보장체계의 확립과 1990년대 의료공급의 개혁과 지역보건사업의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구조적인 요인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서미경 등, 2003).

또한 경제구조의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직종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여성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이분화되어 있던 노동시장 구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정혜선, 1997).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인력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20세~29세에서 평균 교육수는 2000년에 이미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였고, 특히 대졸인구 비중은 2012년 여성이 5.8%상회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저조해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1년 기준으로 57.1%로써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 여성층의 경력 단절 현상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인구를 포함한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노

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의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는 1970년대 양성평등이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기 시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남·녀별 통계가 부재하여 양성평등정책 수립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정표와 권혁규(1999)는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경로가 생애를 통하여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하였으며, 이진희(2004)는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이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동 기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여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에 의해 주도해 왔다고 하였다.

아울러 여호근과 김대환(2005)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생기고 여가활동 참여를 많이 하게 되어 전업주부보다 여가만족 및 주관적 웰빙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태현(2002) 등은 여성인력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긍정적 전망과 함께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감성은 전문적인 직업세계를 구성하는 주요자원으로 새로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성(Feminity),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3F 특성을 바탕으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에서 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여성잠재인력의 취업을 적극 유인하고자 여성인력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에게

권장한 유망직업 80선 중 도전 직업에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2003년 유망직업 100선과 2004년 여성 신직업 온라인 페스티벌 100선에서 “치과기공사”를 여성 유망직종으로 소개하였다(치과기보 제266호, 2005).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진로 및 취업선택에 있어서 높은 취업률과 전문직으로 치과기공소를 자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치과기공사”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이 사회 환경과 취업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상묵 외(2000)는 여성공무원의 비율 증대가 공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강제상과 양기근(2003)은 의과 대학생들의 남·녀 비율이 바뀔으로써 공급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의 인력 배치 및 활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인력의 과잉과 비효율적 활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 증가현황과 성별 비율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기초 성별 통계자료 마련과 협회원의 성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앞으로 치과기공계의 성별에 따른 직무별 재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적정 수요 공급체계 마련 및 능동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 수 및 성별 수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각 연도별 통계연보의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수를 바탕으로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성별 전년대비 증감률과 구성비, 시대별 성장비 등을 기술분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과 성별 구성비 및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자료 등은 각종 문헌 과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정부산하 기관의 DB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고찰 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연보 또는 각 의료기사협회에 가입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치과기공사 협회원 현황은 성별 구분 없이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학과별 성별 인원 현황도 일부 기간에만 조사되어 있고, 보건계열로 통합되어 발표되기에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통계연보에 발표된 연도별 치과기공사 면

허등록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현재 실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전체 치과기공사 수 및 성별 수로 확대 해석 하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III. 연구 결과

1.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 현황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에 따른 연도별 증감현황 및 남·여 구성비 현황은 표 1 및 그림 1, 2와 같다.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남성은 456명에서 12,045명으로 11,589명이, 여성은 5명에서 5,981명으로 5,976명이 증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약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1986년(741명), 여성은 1994년(584명)에 면허등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984년~1988년, 1992년에 600명 이상 증가 했고, 여성은 2001년과 2003년에 5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 이후 1,000명을 기준으로 면허취득자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978년에 넘었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9년 후인 1987년에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1~3년 사이에, 여성은 3~5년 사이에 1,000명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증가 속도가 여성보다 2배정도 빨랐으나, 성별 면허등록자가 4,000명(1999년)이 넘은 후 부터는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한 증가속도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비의 경우 197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성별 구성비는 남성 82.9%대 여성 17.1%

로 남성의 구성비가 여성보다 약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년도 별로 살펴보면 1970년~1980년까지는 남성 90%대 여성 10%로 남

성의 구성비가 매우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남성 70%대 여성 30%로 나타나 여성의 구성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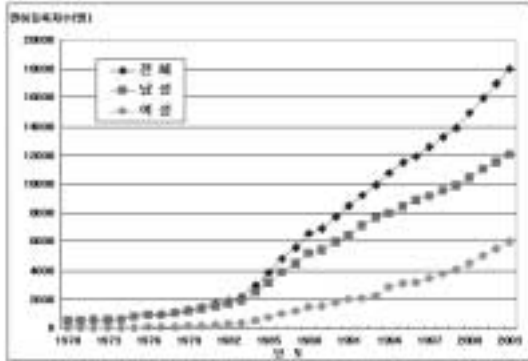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면허등록자 현황



그림 2. 연도별 성별 구성비

표 1.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연도별 성별 구성비 현황

년 도	전 체	남 성	여 성	구 성 비 (%)	
				남 성	여 성
1970	461	456	5	98.9	1.1
1971	486	480	6	98.8	1.2
1972	528	520	8	98.5	1.5
1973	574	564	10	98.3	1.7
1974	591	578	13	97.8	2.2
1975	839	811	28	96.7	3.3
1976	914	874	40	95.6	4.4
1977	980	930	50	94.9	5.1
1978	1,103	1,029	74	93.3	6.7
1979	1,261	1,159	102	91.9	8.1
1980	1,440	1,315	125	91.3	8.7
1981	1,701	1,519	182	89.3	10.7
1982	1,888	1,660	228	87.9	12.1
1983	2,160	1,873	287	86.7	13.3
1984	2,969	2,488	481	83.8	16.2
1985	3,827	3,119	708	81.5	18.5
1986	4,834	3,860	974	79.9	20.1

(표 계속)

표 1.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연도별 성별 구성비 현황 (표 계속)

년 도	전 체	남 성	여 성	구 성 비 (%)	
				남 성	여 성
1987	5,626	4,460	1,166	79.3	20.7
1988	6,582	5,155	1,427	78.3	21.7
1989	6,924	5,393	1,531	77.9	22.1
1990	7,696	5,937	1,759	77.1	22.9
1991	8,468	6,470	1,998	76.4	23.6
1992	9,189	7,118	2,071	77.5	22.5
1993	9,917	7,661	2,256	77.3	22.7
1994	10,789	7,949	2,840	73.7	26.3
1995	11,509	8,443	3,066	73.4	26.6
1996	11,940	8,832	3,108	74.0	26.0
1997	12,587	9,175	3,412	72.9	27.1
1998	13,259	9,507	3,752	71.7	28.3
1999	13,935	9,897	4,038	71.0	29.0
2000	14,912	10,444	4,468	70.0	30.0
2001	15,984	11,002	4,982	68.8	31.2
2002	16,958	11,505	5,453	67.8	32.2
2003	18,026	12,045	5,981	66.8	33.2
평 균				82.91	17.09

*자료: 통계청. 통계연보, 각 년도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2.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 성장비 현황

1) 1970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1970년대비 2003년까지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 성장비와 전년대비 증감수 및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3, 4와 같다.

조사기간 동안 평균 증감수는 남성은 약 351명, 여성은 약 18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94배 많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여 모두 1984년 이후 전년대비 증감수가 평균 증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면허등록자수 차이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증감수가 많았으나 1997년 이후에는 성별 차이가 10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94년에는 여성의 면허등록자 수가 584명으로 남성(288명)보다 많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전년대비 증감률 평균은 여성이 25.56%, 남성은 10.7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약 2.4배 많았으며, 남·여 모두

1975년에 각각 40.31%와 115.38%로 전년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1974년 2.48%, 여성은 1996년 1.37%로 전년대비 증감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1989년 이후 전년대비 증감률이 평균 증감률보다 낮았으며, 여성은 1994년을 제외하고 1987년 이후 전년대비 증감률이 평균 증감률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5명에서 5,981명으로 1,196.20배, 남성은 456명에서 12,045명으로 26.41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까지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는 약 4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비 시대별 성장비의 경우 1980년까지 여성은 25.00배, 남성은 2.88배, 1990년까지 여성은 351.80배, 남성은 13.02배, 2000년까지 여성은 893.60배, 남성은 22.9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장비를 시대별로 남성의 성장비와 비교해 보면 1970년대비 1980년까지는 남성보다 약 8.7배, 1990년까지는 남성보다 약 27.0배, 2000년까지는 남성보다 약 39.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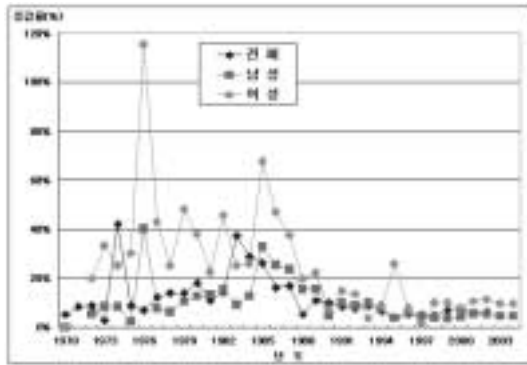


그림 3. 전년대비 성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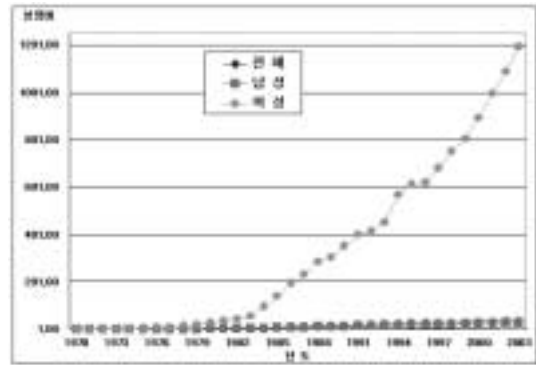


그림 4. 1970년대비 성별 성장비

표 2. 1970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년도	전 체				남 성				여 성			
	등록자	증감수 (명)	증감률 (%)	성장비 (배)	등록자	증감수 (명)	증감률 (%)	성장비 (배)	등록자	증감수 (명)	증감률 (%)	성장비 (배)
1970	461	·	·	1.00	456	·	·	1.00	5	·	·	1.00
1971	486	(25)	5.42	1.05	480	(24)	5.26	1.05	6	(1)	20.00	1.20
1972	528	(42)	8.64	1.15	520	(40)	8.33	1.14	8	(2)	33.33	1.60
1973	574	(46)	8.71	1.25	564	(44)	8.46	1.24	10	(2)	25.00	2.00
1974	591	(17)	2.96	1.28	578	(14)	2.48	1.27	13	(3)	30.00	2.60
1975	839	(248)	41.96	1.82	811	(233)	40.31	1.78	28	(15)	115.38	5.60
1976	914	(75)	8.94	1.98	874	(63)	7.77	1.92	40	(12)	42.86	8.00

(표 계속)

표 2. 1970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표 계속)

년도	전 체				남 성				여 성			
	등록자	증감수 (명)	증감률 (%)	성장비 (배)	등록자	증감수 (명)	증감률 (%)	성장비 (배)	등록자	증감수 (명)	증감률 (%)	성장비 (배)
1977	980	(66)	7.22	2.13	930	(56)	6.41	2.04	50	(10)	25.00	10.00
1978	1,103	(123)	12.55	2.39	1,029	(99)	10.65	2.26	74	(24)	48.00	14.80
1979	1,261	(158)	14.32	2.74	1,159	(130)	12.63	2.54	102	(28)	37.84	20.40
1980	1,440	(179)	14.20	3.12	1,315	(156)	13.46	2.88	125	(23)	22.55	25.00
1981	1,701	(261)	18.13	3.69	1,519	(204)	15.51	3.33	182	(57)	45.60	36.40
1982	1,888	(187)	10.99	4.10	1,660	(141)	9.28	3.64	228	(46)	25.27	45.60
1983	2,160	(272)	14.41	4.69	1,873	(213)	12.83	4.11	287	(59)	25.88	57.40
1984	2,969	(809)	37.45	6.44	2,488	(615)	32.84	5.46	481	(194)	67.60	96.20
1985	3,827	(858)	28.90	8.30	3,119	(631)	25.36	6.84	708	(227)	47.19	141.60
1986	4,834	(1,007)	26.31	10.49	3,860	(741)	23.76	8.46	974	(266)	37.57	194.80
1987	5,626	(792)	16.38	12.20	4,460	(600)	15.54	9.78	1,166	(192)	19.71	233.20
1988	6,582	(956)	16.99	14.28	5,155	(695)	15.58	11.30	1,427	(261)	22.38	285.40
1989	6,924	(342)	5.20	15.02	5,393	(238)	4.62	11.83	1,531	(104)	7.29	306.20
1990	7,696	(772)	11.15	16.69	5,937	(544)	10.09	13.02	1,759	(228)	14.89	351.80
1991	8,468	(772)	10.03	18.37	6,470	(533)	8.98	14.19	1,998	(239)	13.59	399.60
1992	9,189	(721)	8.51	19.93	7,118	(648)	10.02	15.61	2,071	(73)	3.65	414.20
1993	9,917	(728)	7.92	21.51	7,661	(543)	7.63	16.80	2,256	(185)	8.93	451.20
1994	10,789	(872)	8.79	23.40	7,949	(288)	3.76	17.43	2,840	(584)	25.89	568.00
1995	11,509	(720)	6.67	24.97	8,443	(494)	6.21	18.52	3,066	(226)	7.96	613.20
1996	11,940	(431)	3.74	25.90	8,832	(389)	4.61	19.37	3,108	(42)	1.37	621.60
1997	12,587	(647)	5.42	27.30	9,175	(343)	3.88	20.12	3,412	(304)	9.78	682.40
1998	13,259	(672)	5.34	28.76	9,507	(332)	3.62	20.85	3,752	(340)	9.96	750.40
1999	13,935	(676)	5.10	30.23	9,897	(390)	4.10	21.70	4,038	(286)	7.62	807.60
2000	14,912	(977)	7.01	32.35	10,444	(547)	5.53	22.90	4,468	(430)	10.65	893.60
2001	15,984	(1,072)	7.19	34.67	11,002	(558)	5.34	24.13	4,982	(514)	11.50	996.40
2002	16,958	(974)	6.09	36.79	11,505	(503)	4.57	25.23	5,453	(471)	9.45	1,090.60
2003	18,026	(1,068)	6.30	39.10	12,045	(540)	4.69	26.41	5,981	(528)	9.68	1,196.20
평균		532.27	12.09			351.18	10.73			181.09	25.56	

*자료: 통계청, 통계연보, 각 년도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주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로 당해 연도 면허등록자 증감수를 전년도 면허등록자수로 나눈 것임.

주2) 성장비는 당해 연도 면허등록자수를 1970년 면허등록자수로 나눈 것임.

2) 1980년 및 1987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1980년 및 1987년대비 2003년까지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 성장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5, 6과 같다.

1980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125명에서 5,981명으로 47.85배, 남성은 1,315명에서 12,045명으로 9.1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는 약 5.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비 1990년까지 여성은 14.07배, 남

성은 4.51배 성장했으며, 1980년대비 2000년까지는 여성은 35.74배, 남성은 7.94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성장비가 1980년대비 1990년까지는 남성보다 약 3.1배, 2000년까지는 남성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5.13배, 남성은 2.7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 약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1994년, 남성은 1997년에 각각 1987년대비 2.0배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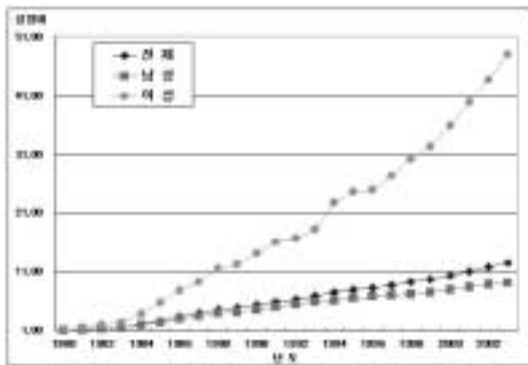


그림 5. 1980년대비 성별 성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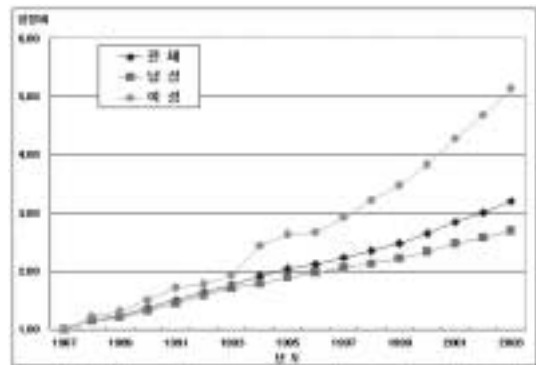


그림 6. 1986년대비 성별 성장비

표 3. 1980년 및 1987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년 도	총 계	성장비(배)		남 성	성장비(배)		여 성	성장비(배)	
		1980년	1987년		1980년	1987년		1980년	1987년
1980	1,440	1.00	·	1,315	1.00	·	125	1.00	·
1981	1,701	1.18	·	1,519	1.16	·	182	1.46	·
1982	1,888	1.31	·	1,660	1.26	·	228	1.82	·
1983	2,160	1.50	·	1,873	1.42	·	287	2.30	·
1984	2,969	2.06	·	2,488	1.89	·	481	3.85	·
1985	3,827	2.66	·	3,119	2.37	·	708	5.66	·
1986	4,834	3.36	·	3,860	2.94	·	974	7.79	·
1987	5,626	3.91	1.00	4,460	3.39	1.00	1,166	9.33	1.00
1988	6,582	4.57	1.17	5,155	3.92	1.16	1,427	11.42	1.22

(표 계속)

표 3. 1980년 및 1987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표 계속)

년 도	총 계	성장비(배)		남 성	성장비(배)		여 성	성장비(배)	
		1980년	1987년		1980년	1987년		1980년	1987년
1989	6,924	4.81	1.23	5,393	4.10	1.21	1,531	12.25	1.31
1990	7,696	5.34	1.37	5,937	4.51	1.33	1,759	14.07	1.51
1991	8,468	5.88	1.51	6,470	4.92	1.45	1,998	15.98	1.71
1992	9,189	6.38	1.63	7,118	5.41	1.60	2,071	16.57	1.78
1993	9,917	6.89	1.76	7,661	5.83	1.72	2,256	18.05	1.93
1994	10,789	7.49	1.92	7,949	6.04	1.78	2,840	22.72	2.44
1995	11,509	7.99	2.05	8,443	6.42	1.89	3,066	24.53	2.63
1996	11,940	8.29	2.12	8,832	6.72	1.98	3,108	24.86	2.67
1997	12,587	8.74	2.24	9,175	6.98	2.06	3,412	27.30	2.93
1998	13,259	9.21	2.36	9,507	7.23	2.13	3,752	30.02	3.22
1999	13,935	9.68	2.48	9,897	7.53	2.22	4,038	32.30	3.46
2000	14,912	10.36	2.65	10,444	7.94	2.34	4,468	35.74	3.83
2001	15,984	11.10	2.84	11,002	8.37	2.47	4,982	39.86	4.27
2002	16,958	11.78	3.01	11,505	8.75	2.58	5,453	43.62	4.68
2003	18,026	12.52	3.20	12,045	9.16	2.70	5,981	47.85	5.13

*자료 : 통계청. 통계연보, 각 년도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주1) 성장비는 당해 연도 면허등록자수를 1980년 및 1987년 면허등록자수로 나눈 것임.

3) 1990년 및 2000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1990년 및 2000년대비 2003년까지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 성장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7과 같다.

1990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1,759명에서 5,981명으로 3.40배, 남성은 5,937명에서 12,045명으로 2.03배 성장하여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는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에는 남성의 성장비가 여성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비 2000년까지는 여성은 2.54배, 남성은 1.76배 성장하여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1998년에, 남성은 2003년에 각각 1990년대비 2.0배 성장하였다. 2000년대비 2003년까지 여성은 1.34배, 남성은 1.1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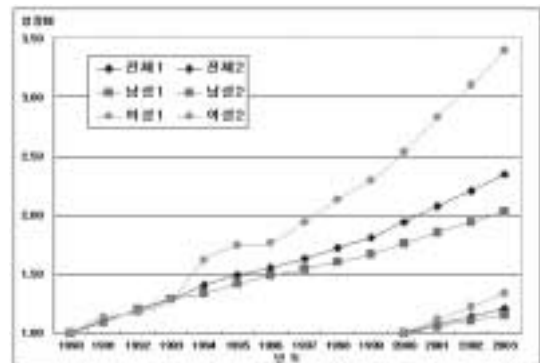


그림 7. 1990년 및 2000년대비 성별 성장비

표 4. 1990년 및 2000년대비 2003년까지 성별 성장비 현황

년 도	총계(명)	성장비(배)		남성(명)	성장비(배)		여성(명)	성장비(배)	
		1990년	2000년		1990년	2000년		1990년	2000년
1990	7,696	1.00	·	5,937	1.00	·	1,759	1.00	·
1991	8,468	1.10	·	6,470	1.09	·	1,998	1.14	·
1992	9,189	1.19	·	7,118	1.20	·	2,071	1.18	·
1993	9,917	1.29	·	7,661	1.29	·	2,256	1.28	·
1994	10,789	1.40	·	7,949	1.34	·	2,840	1.61	·
1995	11,509	1.50	·	8,443	1.42	·	3,066	1.74	·
1996	11,940	1.55	·	8,832	1.49	·	3,108	1.77	·
1997	12,587	1.64	·	9,175	1.55	·	3,412	1.94	·
1998	13,259	1.72	·	9,507	1.60	·	3,752	2.13	·
1999	13,935	1.81	·	9,897	1.67	·	4,038	2.30	·
2000	14,912	1.94	1.00	10,444	1.76	1.00	4,468	2.54	1.00
2001	15,984	2.08	1.07	11,002	1.85	1.05	4,982	2.83	1.12
2002	16,958	2.20	1.14	11,505	1.94	1.10	5,453	3.10	1.22
2003	18,026	2.34	1.21	12,045	2.03	1.15	5,981	3.40	1.34

*자료 : 통계청. 통계연보, 각 연도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주1) 성장비는 당해 연도 면허등록자수를 1990년 및 2000년 면허등록자수로 나눈 것임.

3.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비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각 연도별 성별비(명)와 증감수에 따른 성별비(명)을 조사한 결과는 표 5 및 그림 8, 9와 같다.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각 연도별 성별비는 1970년에는 남성 91.2명대 여성 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많았으나 2003년에는 남성 2.0명대 여성 1명으로 성별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남성 약 43.2명대 여성 1명, 1980년대에는 남성 약 5.7

명대 여성 1명, 1990년대에는 남성 약 3.0명대 여성 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별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증감수에 따른 성별비의 경우도 1971년에는 남성 24.0명대 여성 1명으로 남성이 많았으나 2003년에는 남성 1.0명대 여성 1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증감수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증감수에 따른 성별비의 경우 1970년대에는 남성 약 11.8명대 여성 1명으로 남성의 증감수가 매우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남성 약 3.4명대 여성 1명, 1990년대에는 남성 약 3.2명대 여성 1명으로 성별 증감수 차가 점

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1997년 이후 증감수에 따른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과 1996년은 증감수에 따른 성별비가 남성 8.9명대 여성 1명과 남성 9.3명 여성 1명으로 1990년대 평균보다 남성의 증감수가 매

우 많았으나, 1994년과 1998년은 여성의 증감수가 남성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면허등록자의 성별비 전체평균은 남성 약 15.5명대 여성 1명이었으며, 증감수에 따른 성별비 전체평균은 남성 약 5.3명대 여성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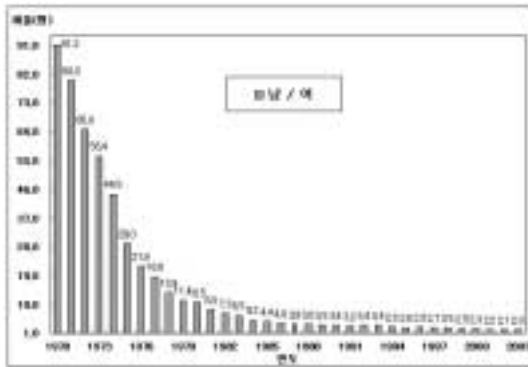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남·여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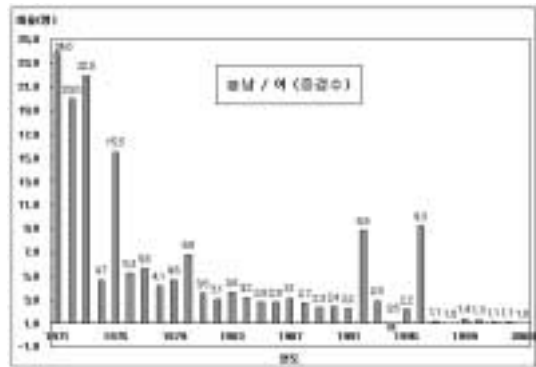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남·여 증감수비 현황

표 5. 연도별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비 현황

년 도	남 성 (명)		여 성 (명)		남 / 여 비 (명)	
	면허등록자	증감수	면허등록자	증감수	면허등록자	증감수
1970	456	·	5	·	91.2 : 1	·
1971	480	24	6	1	80.0 : 1	24.0 : 1
1972	520	40	8	2	65.0 : 1	20.0 : 1
1973	564	44	10	2	56.4 : 1	22.0 : 1
1974	578	14	13	3	44.5 : 1	4.7 : 1
1975	811	233	28	15	29.0 : 1	15.5 : 1
1976	874	63	40	12	21.9 : 1	5.3 : 1
1977	930	56	50	10	18.6 : 1	5.6 : 1
1978	1,029	99	74	24	13.9 : 1	4.1 : 1
1979	1,159	130	102	28	11.4 : 1	4.6 : 1
70년대 평균					43.2 : 1	11.8 : 1
1980	1,315	156	125	23	10.5 : 1	6.8 : 1
1981	1,519	204	182	57	8.3 : 1	3.6 : 1
1982	1,660	141	228	46	7.3 : 1	3.1 : 1

(표 계속)

표 5. 연도별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성별비 현황 (표 계속)

년 도	남 성 (명)		여 성 (명)		남 / 여 비 (명)	
	면허등록자	증감수	면허등록자	증감수	면허등록자	증감수
1983	1,873	213	287	59	6.5 : 1	3.6 : 1
1984	2,488	615	481	194	5.2 : 1	3.2 : 1
1985	3,119	631	708	227	4.4 : 1	2.8 : 1
1986	3,860	741	974	266	4.0 : 1	2.8 : 1
1987	4,460	600	1,166	192	3.8 : 1	3.1 : 1
1988	5,155	695	1,427	261	3.6 : 1	2.7 : 1
1989	5,393	238	1,531	104	3.5 : 1	2.3 : 1
80년대 평균					5.7 : 1	3.4 : 1
1990	5,937	544	1,759	228	3.4 : 1	2.4 : 1
1991	6,470	533	1,998	239	3.2 : 1	2.2 : 1
1992	7,118	648	2,071	73	3.4 : 1	8.9 : 1
1993	7,661	543	2,256	185	3.4 : 1	2.9 : 1
1994	7,949	288	2,840	584	2.8 : 1	0.5 : 1
1995	8,443	494	3,066	226	2.8 : 1	2.2 : 1
1996	8,832	389	3,108	42	2.8 : 1	9.3 : 1
1997	9,175	343	3,412	304	2.7 : 1	1.1 : 1
1998	9,507	332	3,752	340	2.5 : 1	1.0 : 1
1999	9,897	390	4,038	286	2.5 : 1	1.4 : 1
90년대 평균					3.0 : 1	3.2 : 1
2000	10,444	547	4,468	430	2.3 : 1	1.3 : 1
2001	11,002	558	4,982	514	2.2 : 1	1.1 : 1
2002	11,505	503	5,453	471	2.1 : 1	1.1 : 1
2003	12,045	540	5,981	528	2.0 : 1	1.0 : 1
전체평균					15.5 : 1	5.3 : 1

*자료 : 통계청. 통계연보, 각 년도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IV. 고 찰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가 확대됨으로서

2003년 2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여성은 47.0%에 이르고 있어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

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가 감소되고 청·장년층이 축소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매우 절실하다(신경수, 2002).

1975년 UN 제1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남·녀별 통계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지위와 삶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수집하여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지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여성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최강식과 정진화, 1997).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여성의 교육수준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해 여성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참가가 증가하였으며(이연주, 2003), 우리나라 여성 인적자원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적 의미뿐만 아니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질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김봉순, 200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남·녀별 통계가 부재하며,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의 활동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실제 활동 및 가용인력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시행한 본 연구결과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남성은 11,589명이, 여성은 5,976명이 증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약 1.9배 많았으며, 평균 증감수는 남성이 여

성보다 약 1.9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평균 성별 구성비는 남성 82.9%, 여성 17.1%로 남성의 구성비가 약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치과기공계 전반적으로 남성의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70년대 최초로 전문대학에서 정규 치기공과 교육이 시작되기 전 이미 치과기공계에 종사하던 인력이 대부분 남성이었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영역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 가족, 교사, 동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는 긍정적 직업의식을 갖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권정숙, 2000)는 연구결과에 따라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여학생들에게 있어 치기공과는 남성 고유의 직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료된다. 또한 박종희(1997)의 연구에서도 정규교육과정의 실시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전체 치과기공사 중 여성은 3.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치과기공업무가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이러한 남성인력의 누적된 결과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판단된다.

그러나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전년대비 증감률 평균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4배로 높았으며, 1970년, 1980년, 1990년대비 2003년까지 각 시대별 성장비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최대 45.3배에서 최소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Zytoski(1969)의 연구에서 사회적·기술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 했듯이 과거에 전통적인 남성주도의 직종들이 현재는 여성의 도전이 가능한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박종희

(1997)는 여성 치과기공사 증가원인을 1980년대 이후 대학의 증설과 여학생의 치기공과 지원 및 배출 증가 그리고 치과기공사의 업무가 여성들의 특징인 섬세함과 심미적 감각 등 여성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치과기공용 기계의 발달과 재료의 다양화에 따른 편리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은 앞으로 여성들에게 각광받는 전문 직업이 될 것이라고 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각 연도별 성별비는 1970년 남성 91.2명대 여성 1명에서 2003년에는 남성 2.0명대 여성 1명으로 나타났으며, 증감수에 따른 성별비도 1971년에는 남성 24.0명대 여성 1명에서 2003년에는 남성 1.0명대 여성 1명으로 나타나 성별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치과기공계에 여성의 인력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Wolfson(1976) 등이 낮은 수준이지만 남성우월의 비전통적 직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여성이 사회적·기술적 발달로 여성의 직업발달이 남성과 동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을 증명한 결과와 함께, 진로선택이란 자신의 자아감을 반영할 수 있는 흥미와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개인이 진로선택시 준거집단의 활동을 토대로 자신의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감을 갖는다는(이기학, 2003) 점을 고려한다면 치기공과를 지원한 많은 여학생들이 지원동기가 자신의 선택뿐만 아니라 주위에 치과기공사와 연관된 준거집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2002년까지 치과기공사 면허소지자 중 여성 기공사는 32%를 차지하고, 3~4년 전부터 치기공과 재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고 추세를 고려하면 2020년 이후에는 전체기공사의 60% 가까이를 여성이 차지할 것이라는 보도(치과기보 제257호, 2004)를 보더라도 이제는 치과기공업무가 여성이 하기에는 두렵거나 힘든 직종이 아니며, 결혼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진희(2004)는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가사의 부담으로 진로단절을 경험하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직업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진로단절을 경험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숙련도를 높여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여성 치과기공사도 자신이 치과기공소를 자영할 수 있어 진로단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기공과에 여학생의 지원과 이로 인한 여성 치과기공사의 증가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인력관리란 사회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수급을 질적·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의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욕구수준을 높이고 인력자원의 확보, 활용, 개발에 더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사회나 조직에서 인력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조계숙, 1993).

따라서 국가 및 기업, 조직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잠재능력을 갖춘 고학력 여성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활성화시키는가에 달려 있으며, 전문자격 및 면허 제도는 전공 직업 분야로의 진출을 원활히 하며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

하고 직업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이정표와 권혁규, 199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치과기공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치과기공사들을 인적 자원으로 확보하고 유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치과기공계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인적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능동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1970년부터 2003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우리나라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시대별 남녀 성장비와 전년대비 증감률 및 성별 구성비 등의 현황파악을 통해 성별 치과기공사의 인력배출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협회원의 성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제기 및 치과기공사의 직무에 따른 성별 재배치의 필요성 등의 능동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 중 남성은 11,589명, 여성은 5,976명이 증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약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성별 구성비는 남성 82.9%, 여성 17.1%로 남성의 구성비가 약 4.8배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나. 1970년대비 2003년까지 평균 증감수는 남성은 약 351명, 여성은 약 18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94배 많게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증감률 평균은 여성이 25.56%, 남성은 10.73%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1,196.20배, 남성은 26.41배로 나타나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는 약 45.3배 많았다.

다. 1980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47.85배, 남성은 9.16배로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 약 5.2배 많았으며, 1987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는 여성 5.13배, 남성 2.70배로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 약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1990년대비 2003년까지의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3.40배, 남성은 2.03배로 여성의 성장비가 남성보다는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비 2003년까지 성장비의 경우 여성은 1.34배, 남성은 1.1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의 각 연도별 성별비는 1970년 남성 91.2명대 여성 1명에서 2003년에는 남성 2.0명대 여성 1명으로 나타났으며, 증감수에 따른 성별비는 1971년에는 남성 24.0명대 여성 1명에서 2003년에는 남성 1.0명대 여성 1.0명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1970년대 치과기공사 면허등록자 중 10%미만에 불과하던 여성의 비율이 현재 30% 이상 증가했다.

강제상과 양기근(2003)은 한 직종에서 남녀 비율이 바뀌므로써 공급변화로 인해 초래될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연도별 여성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가 남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협회에서는 대표자 및 일반회원 현황을 성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 직무별 및 각 지부별 남성과 여성의 실동 인력파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다가올 의료시장 개방 등 미래 우리나라 치과기공사 인력의 직무별·성별 수요예측 및 능동적인 협회원의 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회내 여성 치과기공사 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여성회원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 치과기공사 유희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등의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제상, 양기근. 공중보건 의사 인력수급불균형 해소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13권

제2호, 69-97, 2003.

권정숙. 직업교육훈련에서 성별 교육경험의 차이 분석. 교육발전논총 제21권 제1호, 125-148, 2000.

김봉순. 21세기 여성유망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제8권, 557-573, 2001.

김상묵 외. 한국 공무원의 성별 직무관련태도 차이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2호, 269-287, 2000.

김태현. 여성전문인력의 특성화 전략-여성유망직종의 개발, 여성연구논총 제13권, 1-14, 2002.

박종희. 한국 여자 치과기공사의 근무실태 조사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제19권 제1호, 149-169, 1997.

서미경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3-285, 2003.

신경수.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절화현상과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5-237, 2002.

여호근, 김대환.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77-106, 2005.

이기학.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13-21, 2003.

이연주. 결혼 및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보건복지포럼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32, 2003.

이정표와 권혁규. 여성 유망직종 자격증 개발. 여성특별위원회, 1999.

- 이진희. 비전통적 직무특성이 여성의 근로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2, 2004.
- 정혜선. 대졸여성의 취업구조와 노동시장내의 특성.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7-31, 1995.
- 조계숙.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전문비서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제13집, 333-367, 이화여자대학교, 1993.
- 최강식, 정진화.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3-9, 1997.
- 치과기보 제257호, 5, 2004.
- 치과기보 제266호, 5, 2005.
- Wolfson K. P. Career development pattern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6.
- Zytoski, D. Toward a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of women. Personnel & Guidance Journal 17, 1969.